

# 예비 작가들의 감수성 훈련 '교과서'

영풍문고 연용호 과장이  
뽑은 김승옥의  
《김승옥  
소설전집(전5권)》



“김승옥의 작품은 밝고 신선했으며 당시로서는 도발적이기까지 했죠. 그러면서도 산업화·도시화의 병폐와 모순을 날카롭게 포착한 작가의 시선이 놀라웠습니다.”

연용호씨(37, 영풍문고 인터넷사업부 과장)는 직업상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그런 그가 고민 끝에 추천한 책은 《김승옥 소설전집(전5권)》(문학동네)이다. 문예창작과를 나온 그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김승옥이라는 소설가를 처음 만났다.

“김승옥의 작품은 대학시절 내내 제 감수성을 훈련시킨 '교과서'였습니다. 다른 1960년대 작가들의 작품이 우울했던 데 비해, 그의 작품은 밝고 신선했으며 당시로서는 도발적이기까지 했죠. 그러면서도 산업화·도시화의 병폐와 모순을 날카롭게 포착한 작가의 시선이 놀라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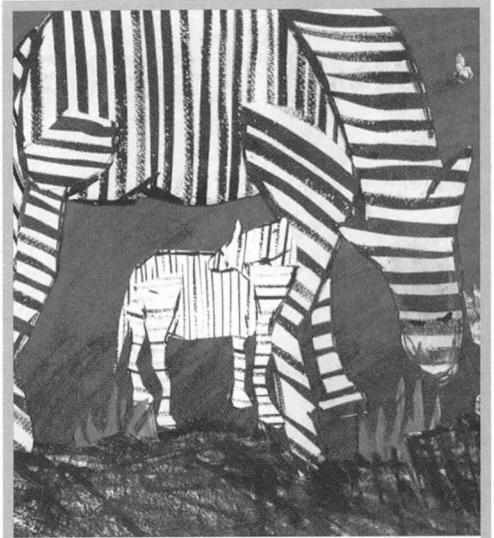
연씨는 대학시절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김승옥의 작품을 구해 읽었다. 그 가운데 《무진기행》(서울 1964년 겨울)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 《서울...》을 모방해서 소설을 써보기도 했다.

“김승옥의 작품을 보면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마구 솟구쳐오르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좌절감도 맛봐야 했죠. 과연 그의 작품을 능가하는 소설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연씨는 김승옥이 창조한 주인공들의 허무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짐작한다. 그가 대학시절에 좀더 사회현실과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다고 반성하면서 이른 생각이다. 그 때문에 대학졸업 후 그동안 김승옥의 온건한 소설경향에 반감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1995년 출간된 《김승옥 소설전집》을 읽으면서 김승옥 문학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마침 그 때 잡지 기자일을 하던 터라, 전집 출간을 핑계로 김승옥씨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상 외로 그는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면서도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를 만나고 보니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더군요. 절필하고 종교에 귀의한 것까지도요. 더욱이 전집에 실린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김승옥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연씨는 소설가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김승옥의 작품을 권한다. 최근 20~30년 동안 수많은 작가들이 등장했지만, 김승옥만큼 아름다우면서도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김정은 기자



“얼룩말도 밤에 자요?”

“응, 얼룩말은 밤새 서서 잔대.”



동물 친구들은  
밤에 뭐해요

이은숙 글·그림

아빠곰이 아기곰에게  
다른 동물들은 밤에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해 준다.

## 아동책 편집자 모집

아동출판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편집·기획자를  
모집합니다. 신입·경력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4월 8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주소 : editorial@marubol.co.kr

도서출판 마루벌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보여 주고 싶은 좋은 창작그림책을  
꾸준히 기획·출판하고 있습니다.  
이코페미니즘의 새 시대 어린이들을 위한  
참신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의욕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 전화 701-2390 / 팩스 701-2395  
http://www.marubol.co.kr